

상시시험 종목

워드프로세서

+ 국가기술자격 +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

〈워드프로세서〉는 585만 명 이상의 합격자가 배출된 명실공히 국민자격시험으로 워드프로세서 운영 및 편집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입니다.

자격개요

등급	검정방법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
단일등급 (구1급)	필기	워드프로세싱 일반 PC 운영체제 컴퓨터 및 정보활용	객관식 60문항	60분
	실기	문서편집기능	컴퓨터 작업형	30분

*실기프로그램 : 한글 2010, MS 워드 2010

합격결정 기준

필기 : 과목당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2018년 시행일정

상시시험 (전국 51개 상공회의소 상설검정장에서 상시검정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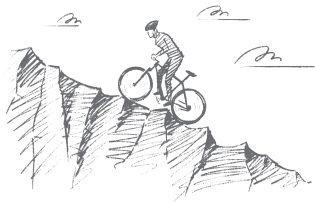
구분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필기/실기	단일등급	개설일로부터 시험일 4일 전까지	연중상시	필기 : 익일 오전 10시 실기 : 2주 후 금요일

정기시험

회별	검정방법	등급	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
1회	필기	단일등급	02.07~02.13	03.03	03.22
	실기	단일등급	03.22~03.28	04.14	05.15
2회	필기	단일등급	08.09~08.17	09.01	09.27
	실기	단일등급	09.27~10.03	10.20	11.20

아웃소싱 기업 계약직에서 공무원이 되기까지

김강미



저는 대학교에 소속되어 근무할때에 취업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학생 또는 요즘 젊은 이들의 취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고 있는 수기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택

서울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 상업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3때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주된 업무가 판매된 물건의 할부금을 업체에게 전화를 하여 연체이자와 독촉을 해야했는데 어린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폭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1년 정도 근무하고 내 삶의 질을 높여보고 싶어 모은 돈으로 전문대학 진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공이 전자계산학이기 때문에 대학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IT, 전산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워드프로세서 1급과 컴퓨터활용능력 2급을 쉽게 취득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 전문성있고 취득이 어려운 자격증을 도전했는데 아무래도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공부할 때 쌓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서 다른 자격증 취득이 수월했습니다.

나중에는 노하우가 생겨서 100점을 목표로 배운 것을 모두 안다면 좋겠지만 평소 자격증 취득 공부를 할 때 최종점수 70점을 기준으로 삼고 과락을 피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학점은행을 통해서 학사로 졸업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거친 세상 속으로 내던져지다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로 졸업했지만 세상은 “어느 대학 나왔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간판이 좋은 대학을 인정해주는 사회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대학을 나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지 알아주지 않는 듯 취업하기 힘들었습니다. 고졸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꿈꿨지만 세상은 그리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 취업이 중요했기 때문에 몇몇 곳에 지원을 하다 보청기회사 사무실 회계업무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회계보다는 보청기 판매를 주업무로 하게 되면서 원래 하려했던 업무도 아니고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참고, 근무를 했습니다. 대학시절 남학생들의 IT회사 취업 소식을 들으며 전공을 살려보자는 생각에 과감히 퇴사했습니다. 유명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렸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IT인력 아웃소싱 회사였는데 내일부터 당장 근무를 해야하며 근무지는 광화문에 있는 공공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주민센터도 거의 갈 일이 없던 내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람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전자정부의 프로젝트 진행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정도의 작은 일이었지만 적은 급여라도 보람을 느끼고 성실히 근무를 하였습니다.

1년도 안되는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결국 끝났고 다음번 프로젝트에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번 프로젝트 마감까지로 늘어나게 되면서 원래 소속된 아웃소싱 회사에 가서 근로계약을 연장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반갑게 맞아 주시며 그날 면접관이었던 분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계약연장된 것을 축하해주셨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주셨습니다. 갑자기 면접을 보고 내일 당장 근무를 시킬 정도로 촉박했던 이유는 원래 합격했던 사람이 근무시작 전날 취소를 하여 비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구인구직에 올라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고 투입해도 문제없이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낼 사람 몇 명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고3 어린나이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에 대학을 다니면서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과 많은 사람들은 내 노력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었는데 알아주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니 그 동안의 서러움과 힘겨움이 눈 녹듯 녹아 눈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도전의 시작

시간이 지나 모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고용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근무하던 곳이 광주로 가게 되면서 같이 가자는 말에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전라도 광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시간이 흘러 무기계약직이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보다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 고용의 안전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안전함에 기대어 오랜시간 자격증과 자기개발에 소홀해지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크게 2개로 보면 공개채용으로 시험을 보거나, 경력채용으로 그동안의 경력과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채용을 합니다. 사기업 근무경력부터 무기계약 근무까지 10년의 경력과 자격증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됩니다. 서류에 합격을 하고 열심히 면접질문과 대답 그리고 자기기술서를 준비했습니다. 면접 당일 준비된 정장을 입고 면접순서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면접 때의 기억이 생생한데 2명의 면접관이 인상정보가 제외된 나에 대한 서류들을 읽으며 인사를 시작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셨는데 그 이유와 지금 준비 중이거나 따고 싶은 자격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당시 제 대답은

“칭찬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취직과 이직을 위해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파워포인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현재 IT PLUS 파워포인트를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면접관 2분 모두 미소를 보이셨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면접자 대부분 경력이 10년 전후였기 때문에 많은 자격증이 합격여부를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요즘 저에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갈 수 없다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경력을 쌓아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해줍니다.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워드나 컴활같은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말에 “에이~ 요즘 워드, 컴활 못하는 사람이 어딴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력서에 자격증란이 한두 줄이라도 채워있는 사람이 합격할까요? 한줄도 못 채운 사람이 합격할까요? 그리고 서류랑 면접 점수 다 똑같으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합격할까요? 있는 사람이 합격 할까요?” 라고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의 중요함을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과거에는 한번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모작이라고 해서 은퇴 후의 생활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고용불안과 급격히 변화는 사회에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 3번의 직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취직, 이직, 100세 시대를 위해 은퇴 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준비를 안 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 글을 읽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준것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기 작성을 빌어 상공회의소 임직원과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을 발굴하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수기 제목이 『아웃소싱 기업 계약직에서 공무원이 되기까지』였기 때문에 경력 채용을 통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과 취업, 이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다보니 자기개발에 나태해지고, 은퇴 후의 인생에 고민을 안하던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